

한국문화교류 소식

52호 2024년 6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5643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03, 남양빌딩 4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생명존중과 윤리의식



전 영 섭

ICKC 감사, 변호사

1. 머리말

기후위기나 인공지능이 보편화되어도 격감하는 꿀벌이나 산양의 멸종을 막을 수 없고 들판의 질경이와 아우르는 피폐된 생태계는 시급히 복원되어야 합니다.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글로벌하게 펼쳐 보려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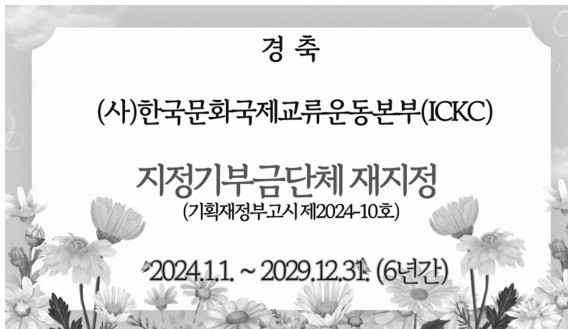
① 1952년 여름 무덥던 날 오후 제주 협재 해수욕장 뒤쪽 모래사장, 오랏줄에 묶인 황구가 몽둥이

질에 최후의 순간까지 살려고 울부짖고 몸부림치다 실신하자 그 위에 거적을 덮고 그을려 육점을 찢어먹는 패거리 영상이 있고

② 이웃나라나 동족까지 살상하는 전쟁과 정쟁. 사냥놀이나 뒷에 앞다리가 잘린 고라니의 눈빛, 남벌로 황폐화된 산야의 잔영은 생명 천시의 인간 유희가 아닌지 반추합니다.

2. 생명체 기원

지구에 최초 생명체 출현이 어떠한지 그 실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오늘날 다양한 생물



종(種)이 생존하는 실상과 학설을 봅니다.

① 천지창조설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 빛과 물, 바다, 풀과 나무, 생물과 새, 물고기, 짐승을 태어나게 하시고 양식과 식량을 지정하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세기 2장 7절)는 창조설은 근대 이전의 실상이었습니다.

② 진화론

18세기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이 모든 생명체는 ‘자연선택’을 통한 변이로 생활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한 동식물 종으로 진화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윈의 학설은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심한 비판을 받았으나, 진화라는 방법론은 다양한 학문(사회학, 지질학, 심리학 등)에 응용되어 오늘날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③ 유전자와 유전체의 발견

다윈의 진화론에 터잡아 멘델(Gregor Mendel, 1822~1884)이 생명의 기초로 유전법칙을 발견하고 오파린(Alexander Oparin) 교수가 “대기에 빛이 작용하여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뭉쳐 자기복제를 할 수 있는 원시 생명체가 탄생하였다”는 가설에 학자들이 동조하여 “유전자에 의한 유전과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이론”이 현대 생물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1953년 왓슨(James Watson, 1928~)과 크릭(Francis Crick, 1916~2004) 교수는 유전자 구조를 해독하였습

니다. 이어 미셔 교수(스위스)가 “핵산(核酸, ribonucleic acid)”도 처음 발견하고 DNA(Deoxyribonucleic acid)와 RNA(Ribonucleic acid, 리보핵산)로 구성된 유전자 구조도 밝혀 생명체의 발생과 기능에 따른 진화과정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3. 인간과 동물

① 종 차별주의

과도한 자연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인간의 무분별한 남획, 살상으로 일부 생명체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일깨웁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동식물을 식량원이나 실험 또는 쾌락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동물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생존 목적이 되지 못하고 인간이 이용하는 도구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꾸민 자신을 위한 합리화의 슬픈 테마극입니다.

반면에 동식물도 생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는 동물권리론(톰 리진(미, 철학). 중앙법학 ‘동물권 논쟁’)이 학계에서 논의되며 ‘인간과 동물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피터 싱어, ‘동물해방 1975’)는 싱그러운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존중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연결되어 있다’는 1978년 유네스코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 1978)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천부인권처럼 동물도 태어나면서 ‘생존할 권리’, ‘학대나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본래의 습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지닌다는 주장이 인문의 향상 발전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② 법률상 지위

동물의 생존권을 법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나라에서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1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등록, 사육 규정을 보완하고 학대에 징역형을 신설하는 등 단속과 행정규제에 치중하고 있으나 생존권 등 동물권리 인정에는 미



▲ © mayaibuki, 출처 Unsplash

흡한 상황입니다. 동물들은 농장, 도살장, 실험실, 전시공간, 보호소는 물론 집과 길거리에서 끔찍한 폭력을 당하고 안락사 요건에 해당해 죽기도 합니다. 가축 등은 아직도 민법상 재화에 불과하고 이윤을 앞세운 산업사회의 단면으로 ‘물건’으로 취급되나,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③ 반려동물의 식용문제

동식물은 인간의 식량공급원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개에 대한 식용 여부가 글로벌 문화기준에 맞물려 문화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적 윤리적 관점에서 식용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반대의견도 많습니다. 우리 속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평생을 간혀 지내는 식용견이나 보신탕으로 알려진 문화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판례도 ‘특정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준다’(대법원 2017도16732호, 2018.09.13.)고 하였습니다.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다행히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¹⁾이 통과되었습니다(타이완은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식용금지 시행).

4. 윤리의식

인간의 진화가 생태적인 것이냐 사회진화론에 따른 유전자에 미치는 환경영향 때문이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생물인류학(조지프 헨릭의 저서 “호모 사피엔스”)에서는 진화론의 핵심인 “자연선택”과 “성선택 가설”을 원용해, 인간의 진화가 유전자의 변화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발전과 협력에 의존한다하여 인간의 윤리성을 강조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 단계에선 동등할지라도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망상이 찢어


지지 않는 한 진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때 지구상을 석권하던 공룡도 멸종한 예에 비추면 인간의 무자비함이 극성하여 단순한 식물과 동물에 비해 짧은 기간에 멸종할지도 모르므로 공존공생을 염두에 두고 “생명존중”이란 가치를 재음미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생하는 지구 만들기와 멸종위기종 보호라는 “지구건강(Planetary Health)”이 훨씬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주시대로 발전과정에서도 이는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입니다.

한편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심한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농작물 생산이 급감하고 동물의 아사, 식수 부족 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매년 상승하는 해수면도 문제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북극과 시베리아 빙하가 다 녹으면 모기떼와 박테리아에 의해 지구 생태계가 명멸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지구 환경의 변화 또한 우리가 “생명존중”을 지상의 가치로 중시해야 하는 이유이자, ICKC가 생명존중 운동에 동참하고 여러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 끝내기

동식물계에는 자기보존의 잠재력이 있으므로 ‘천적’이나 ‘먹이사슬’ 같은 자연선택으로 생존 양상이 결정되고 보존됩니다. 동식물에 비극적인 살상을 가하거나 인간의 몸치장, 유희, 사냥, 의도적인 생태계 파괴 등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삶을 위한 ‘단백질 보충 등 생존’에 한한 살상 정도만 허용되는 게 이러한 진화론의 자기보존 원리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유전공학 분야의 기본원리는 미생물에서 작동되는 유전현상을 유전체를 통한 반려동물에 응용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진화론의 자기보존 원리를 고려하여 사회통념과 입법방향이 동물권 인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집 : 현장의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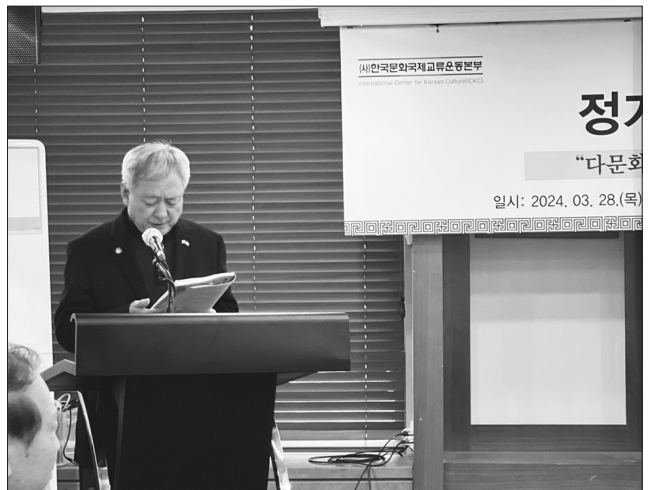
다문화 사회 한국이 나아갈 길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창립 13주년 기념 포럼 개최

ICKC는 지난 3월 28일(목),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 총회 및 “다문화 사회 한국과 아시아”라는 주제로 창립 13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석 못 하신 회원 분들께 총회와 포럼의 취지 및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전해 드립니다. 총회, 세미나, 문화탐방 등 ICKC에서 개최하는 여러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_ ICKC 사무국

사단법인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 이하 ICKC)는 2024년 3월 28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다문화 사회 한국과 아시아’라는 주제로 정기총회 및 창립 13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포스코DX(정덕균 대표이사 사장)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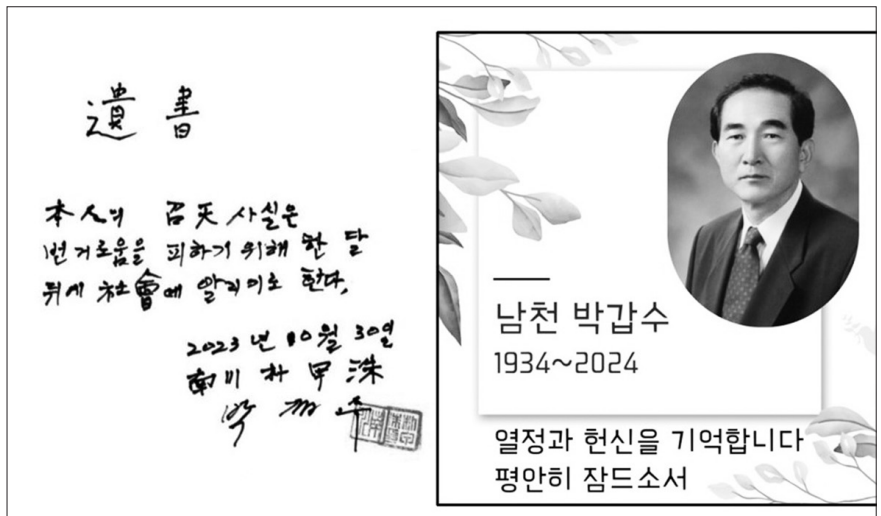
이날 행사는 1부 정기 총회와 2부 기념 포럼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 총



▲ 인사말과 환영사 중인 위호인 ICKC 이사장(左)과 박의근 재정위원장(右)

회에서는 위호인 ICKC 이사장이 인사말하고,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겸 동물 복지위원장이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WT)과 ICKC의 총재를 겸하고 있는 조정원 총재의 환영사를 대독했다.

위호인 이사장은 인사에 앞서 지난 2월 23일 향년 91세로 영면하신 박갑수 ICKC 전 이사장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평생 한국어 연구와 세계화에 헌신했던 박갑수 이사장은 “본인의 소천 사실을 주변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한 달 뒤에 사회에 알리기로 한다”는 유서를 남기며 큰 울림을 주고 세상을 떠나셨고, 참석한 회원 분들 모두 박갑수 이사장께 존경과 추모의 뜻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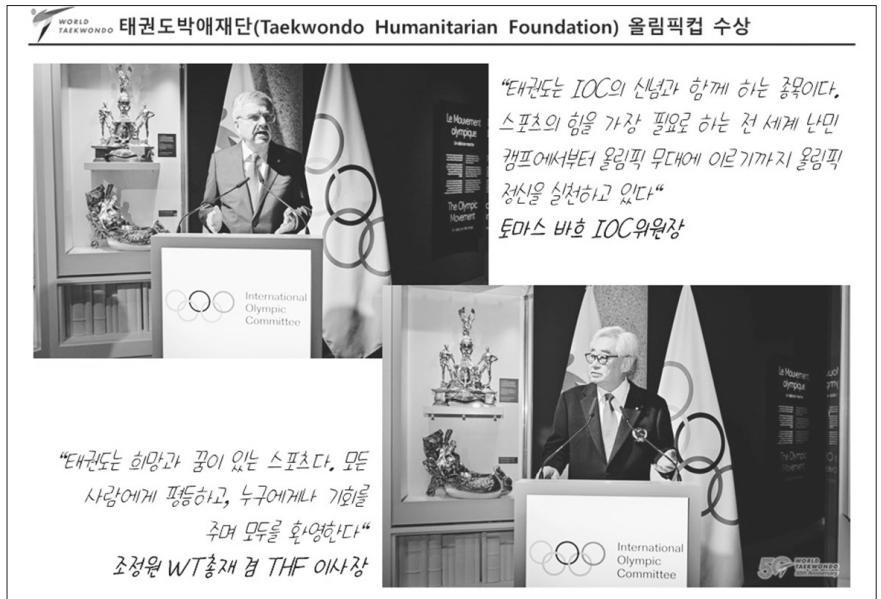
▲ 남천(南天) 박갑수 ICKC 전 이사장(서울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영면

환영사에 이어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2023년 회계결산 및 2024년 사업계획 보고, ICKC 사무국 이전 등 주요 안건 상정과 의결이 이루어졌다. 서울시 마포구 소재 ICKC 사무국을 서울시 송파구로 이전하는 데 참석한 회원 모두 동의했고, 이번 이전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ICKC 여러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음으로 세계태권도연맹(WT) 주요 사업 보고가 있었다. ICKC 이사이자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인 강석재 위원이 단상에 올라, ‘WT 케어스 프로젝트’, ‘태권도박애재단(THF)’ 주요 활동을 설명하고, 스포츠를 통한 인류 공헌에 힘쓴 공로로 올림픽 박물관 태권도 동상 제막 및 올림픽컵 수상을 보고해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세계태권도연맹 주요 사업 보고하는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 IOC로부터 올림픽컵을 수상한 태권도박애재단(THF) 세계태권도연맹 발표자로 중

이어서 특별 순서로 'ICKC 미래인재 격려상' 수여식이 열렸다. ICKC 미래인재 격려상은 세계 각국 한글학교나 현지 교육기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한국인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우수한 인재를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올해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영국 더럼(Durham) 북동부한글학교 소속 김지수 학생(16)이 선정되었다.

김지수 학생은 나의꿈국제재단(이사장 손창현)이 주최한 '영국 청소년 꿈발표

제전'에서 대상을 수상해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나의 꿈 갈라'에 영국 대표로 참가하는 등 차세대 미래인재로서 자질이 충분해 본 격려상을 수상했다. 현재 영국에 거주 중인 김지수 학생에게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사전에 전달되었고, 김지수 학생은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한국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전해 왔다.

<p>■ ICKC 미래인재 격려상 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자 : 김지수 (16세) - 영국 더럼(Durham) 북동부한글학교 소속 - “영국 청소년 꿈발표 제전” 대상 [‘나의꿈국제재단’ 주최] - 김호일 ICKC 재정위원의 손녀 	
---	---

▲ 'ICKC 미래인재 격려상'을 수상한 김지수 학생

2부 창립 13주년 기념 포럼에서는 '다문화 사회 한국과 아시아'라는 제목으로 아시아발전재단(ADF, 이사장 김준일) 조남철 상임이사가 강연했다. 전 국립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자 ICKC 전 이사장을 지낸 조남철 상임이사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 및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난민 문제 등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여러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청중들과 함께 다양한 문제를 토의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조남철 상임이사는 이어서 아시아발전재단(ADF)이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아시아발전재단은 “더불어 함께 가는 아시아”라는 비전 아래 장학사업 등 인재양성, 고려인 동포 지원 사업 등 교류협력, 태권도 케이스 프로그램 및 의료 지원 등 나눔사업, 기타 문화공헌 사업 등 국내 최고의 다문화교육문화재단으로서 국내외에서 공인받고 있다. 포럼 참석자들 모두 아시아발전재단의 다문화 지원 사업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하고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내며 강연을 마쳤다.



▲ '다문화 사회 한국과 아시아'라는 제목으로 강연 중인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참석자들이 오늘 행사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기념촬영한 후 2024년 정기총회 및 창립 13주년 기념포럼이 마무리되었다. □□□□□□□□



▲ ICKC '정기총회 및 창립 13주년 기념 포럼' 참석자 기념촬영

난민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대축제 '호프 앤 드림스' 요르단서 성료



강석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난민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호프 앤 드림스 스포츠 페스티벌(Hope and Dreams Sports Festival)'이 요르단 암만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WT)과 태권도박애재단(THF)은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현지시각)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보호구역인 자타라-아즈락 캠프와 암만 스포츠시티와 수마야홀 등에서 스포츠를 통한 꿈과 희망을 주는 난민 스포츠 대축제 '호프 앤 드림스(Hope and Dreams) 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각) 요르단 내 유엔난민기구(UHCR)로부터 허가받은 시리아 난민 보호구역 내 태권도와 스포츠 활동을 하는 아즈락캠프와 자타

리캠프에서 태권도와 베이스볼5, 배드민턴, 농구 등 종목별 공개 수업과 시범공연 등으로 막이 올랐다.

이날 마지막 날 축제는 UNHCR과 요르단 정부의 특별 허가로 난민캠프에서 벗어나 요르단 수도 암만 시내 중심에서 태권도와 베이스볼5, 배드민턴 등 3개 종목이 열렸다.

태권도 대회에는 2013년 태권도 아카데미가 시작된 자타리캠프와 2016년부터 시작된 아즈락캠프 태권도 수련생 350여명이 참가했다. 평소 캠프 내에서 쌓은 실력을 타 난민 캠프 수련생들과 함께 실력을 겨루며 우정을 쌓았다.

특히 지난 2일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장 토마스 바흐, IOC)가 2024 파리 올림픽에 난민 올림픽팀 선수로 선정된 11개국 12개 종목 36명의 난민 선수 중 한 명인 아즈락캠프 태권도 남자 -68kg급 야히야 알 고타니(Yehya Al Ghotani, 20)가 지난해에 이어 압도적인 기량으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또한, 시리아 난민으로 태권도 수련 2년 미만인 지체 장애인 모하메드 나짐(Mohamad najm, 12)과 마헤르 케르만(Mohamad maher kerman, 16)이 비장애인과 당당히 겨뤘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각각 2연패를 달성해 눈길을 끌었다.

WT는 이번 태권도 종목 만11~13세 부문 우승자 중 우수한 실력을 갖춘 선수를 선발해 아랍 에미리트(UAE) 푸자이라에서 개최될 '2025 세계유소년선

수권대회'에 특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만 스포츠시티에서 열린 베이스볼5(Baseball5)는 난민팀과 요르단 일반 3개 클럽이 함께 12세 이하부와 14세 이하부, 16세 이하부 등 3개 부문 등에서 경쟁을 펼쳤다. 12세 이하부는 요르단 베이스볼 5 유소년팀인 맥크벨레팀(maqbeleh)이 아즈락캠프를 꺾고 우승했다. 14세와 16세 이하부는 아즈락캠프가 모두 휩쓸었다.

올해부터 신규 종목으로 참여한 배드민턴은 이제 갓 아즈락 캠프에 보급돼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 10명이 참가해 요르단배드민턴협회 유소년재능클럽 소속 10명과 6세부터 13세까지 친선대회 형태로 경기를 진행했다.

이번 축제에 참가한 난민 아동과 청소년은 이날 만큼은 경쟁보다는 스포츠를 통한 잊지 못할 매우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평소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사막 위 삭막한 컨테이너에서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해오던 이들이 TV에서나 보던 바깥세상으로 특별히 외출할 수 있어서다.

올해 두 번째 맞은 이 행사는 2022년부터 난민캠프 내 태권도 난민 페스티벌을 해오던 것을 지난해부터 세계야구베이스볼연맹(회장 리카르도 프라카리, WBSC)과 뜻을 함께하면서 태권도와 베이스볼5, 배드민턴, 농구 등 난민 종합 스포츠 축제로 확대했다.

폐막식에는 WT 및 THF 조정원 총재와 서정강 사무총장, 마헤르 마가블래 집행위원을 비롯해 작년부터 공동주최로 함께하는 WBSC 리카르도 프라카리 회장, 세계배드민턴연맹 자셈 칸소 부회장, 요르단태권도연맹 라시드 빈 하산 회장(요르단 왕자), 주한국대사관 김동기 대사 등이 참석해 난민 스포츠축제에 참가한 선수단을 격려했다.

조정원 총재는 “태권도가 앞장선 난민 캠프가 올해로 두 번째 맞아 더 많은 스포츠가 참여해 난민 아동,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격려할 수 있


는 행사를 열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요르단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지속해 이들 난민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해 줘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탁구와 유도, 레슬링, 핸드볼, 배구 종목 등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봉사팀과 함께 방문해 난민들의 건강과 보건의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며, 곧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 교육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우리말로 인사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덧붙였다.

이날 폐막식 후 THF는 전 세계 최대 시리아 난민 보호구역인 자타리캠프에 2013년부터 11년째 태권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국난민기구(회장 이철수, KRP)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시리아 난민에게 태권도를 통해 국제 시민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함께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KRP는 자타리캠프 내 태권도아카데미 훈련장소를 제공하고, THF는 태권도 지도자 파견, 태권도 훈련용품, 국기원 승품단 심사 협력 등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KRP 이철수 회장은 “지난 11년 동안 태권도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늘 우리 아이들의 앞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난민캠프는 자유롭게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이루기 어렵다. 그런데 이번 MOU를 맺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앞길이 열리게 됐다. 더 많은 사람에게 격려 받고, 국제적인 선수와 지도자로 꿈을 꾸게 됐다. 나무를 심고 물만 줄 수 있었는데,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된 계기가 됐다”고 크게 반겼다.

KRP는 시리아 난민캠프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8만여 명의 난민 가족이 거주한 자타리캠프 내에서 2013년부터 UNHCR 허가로 태권도 아카데미를 설립해 난민 자녀들에게 태권도 교육을 통한 전인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야히야 선수 : 2024 파리 올림픽 난민팀 선수로 선정

야히야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일어난 후 여덟 살 어린 나이에 영문 없이 부모, 형제와 함께 국경을 넘어 피란길에 올랐다. 그리고 요르단 내 두 번째로 큰 아즈락캠프에 정착, 부모와 육남매가 함께 컨테이너 두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춘기 시절인 14세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았다. THF가 2016년 아즈락캠프에 문을 연 태권도 아카데미에 2018년에 태권도에 입문했다. 일찌감치 두각을 발휘하면서 보호구역을 벗어나 태권도대회에 출전한데 이어 여러 국제대회까지 출전하며 새로운 큰 세상을 만났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꿈이었던 야히야는 마침내 이번 IOC가 발표한 5명의 난민 태권도 선수 중 유일하게 보호구역 내 생활하는 선수로 유일하게 선발됐다. 사막 한 가운데 미래가 불투명한 비극의 땅에서 태권도를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발돋움한 야히야는 올림픽 본선 진출에 이번 대회에 출전한 여러 난민 선수들에게 큰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 난민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대축제 '호프 앤 드림스' 개막식

이번 행사를 주관한 THF는 2016년 인류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스포츠를 통한 동참을 위해 WT가 발족한 단체이다. 전 세계 난민 캠프와 자연재해 지역 아동 및 청소년에 꿈과 희망 프로젝트로 태권도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IOC와 여러 국제스포츠 단체와 함께 협력해 대회, 축제로 확산시키고 있다.



▲ '호프 앤 드림스' 아즈락 난민캠프 태권도 참가자 응원 모습



▲ '호프 앤 드림스' 난민캠프 선수 경기 장면(아히야알 고타니 코칭 중)



▲ WT 조정원 총재, WBCS 프리카리 총재(가운데)와 베이스볼5 참가팀

말레이시아한국인학교에 올려퍼지는 우리 가락



김 용 연

말레이시아한국인학교 교무부장

‘덩덩 쿵더쿵 덩덩 쿵더쿵’ 장구소리가 들려옵니다. 작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 한국인학교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우리의 소리입니다. 방과 후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영남사물놀이 가락에 맞추어 장구를 칩니다. 차근차근 배워 온 길군악, 반길군악, 영산다드래기, 별달거리, 휘모리로 마무리까지 합니다. 별달거리에서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 모두 한 목소리로 사설을 할 때는 아이들이 양손에 궁채와 열채를 들고 어찌나 우렁차게 소리를 내는지 쌓인 스트레스가 날아갈 정도입니다. 우리 가락을 느끼고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대학에

서 현지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주 토요일 말레이시아한국인학교에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현재는 중고등부 교무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교 50주년이 되는 말레이시아한국인학교는 유아 유치부터 초·중·고등부까지 총 300여 명의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에서는 국어, 국사, 한문, 수학 4교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배우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보통은 한국의 설날이나 추석 명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거나 단편적인 체험을 하는 정도입니다.

이를 늘 아쉬워하며 문화수업 특별반을 운영하고 싶은 소망을 늘 가지고 있던 차, 2023년 여름, 전주시 주최 재외동포교육자 대상 ‘한국전통문화 집중연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물놀이, 부채춤, 민요, 한삼춤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집중적으로 배워 비록 비전문가이지만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익히게 되어 그해 10월, 말레이시아한국인학교에 저의 오랜 꿈이었던 ‘사물놀이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우리 가락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청소년들에게 이곳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재외동포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배우고 함께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우리 문화를 더 이상 낯설어 하지 않고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큰 의미가 있기에 저는 더욱 행복하게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예정된 개교50주년 행사에서 학생들이 영남사물놀이를 공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토요일 방과 후에 톡톡이 익힌 우리 가락을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옵니다.

제가 작년 연수를 마무리하며 “나에게 전주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기대하도록 이끈 소중한 곳입니다.”라고 메모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수에서 보고 느낀 한국의 역사와 정다움은 오래전 제가 자란 모국의 울림과 따뜻한 추억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함께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 또한 같은 마음이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며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를 재외동포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우리 문화의 멋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50년, 100년, 그 이상 우리 가락과 문화가 계속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말레이시아한글학교 사물놀이반 수업 모습



한국어

브라질 상파울루서 한국어, 제2외국어로 공식 지정된다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공식 지정하고 브라질 초·중·고등학교 내 한국어 교육을 본격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은 5월 20일(현지시간) 주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상파울루시 교육부가 브라질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공식 지정되며, 지난해 상파울루 언어연구센터(CELP)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바 있는 한국어 수업이 정규수업으로 편성된다. 교육원은 이를 위해 한국어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교육도 병행해 브라질 현지 학교 내 대한민국 브랜드 제고에도 힘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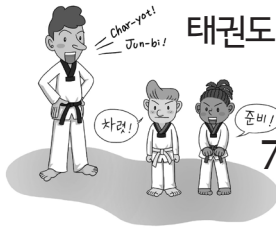
페르난두 파둘라 상파울루시 교육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어 교육이 지속 확대 지원되고, 상파울루시에서도 한국어 교원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상파울루=연합뉴스) 김지윤 통신원, 2024/05/21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1005400009?section=search>



▲ 상파울루시와 대한민국 총영사관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태권도

7월 대구에서 세계대학태권도 축제가 열린다...

대구 2024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개최

올 7월 대구광역시에서 전세계 20여 개국의 태권도 선수 18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대구 2024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은 올해 7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대구 계명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 일본, 네팔, 브라질 등 20여 개국 500명의 해외 선수단과 1300명의 국내 선수단으로 구성된 1800여명의 선수단을 비롯해 동반가족 등 2000여 명이 이상이 모여 태권도를 통해 스포츠의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교류를 나누는 K-태권도 국제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이번 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인증하고 세계태권도연맹(WT)이 승인하는 구조의 대회로 IOC 산하 국제경기연맹단체 두 개가 협업하는 대회이어서 WT 주최 FISU 인증 대회로는 사실상 첫 대회로 볼 수 있다. WT 조정원 총재의 초청으로 FISU의 Leonz Eder(스위스) 신임회장 과 Eric Saintrond(벨기에) 사무총장이 페스티벌 행사 기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기사 출처] (osen, 조선일보) 우충원 기자, 2024/0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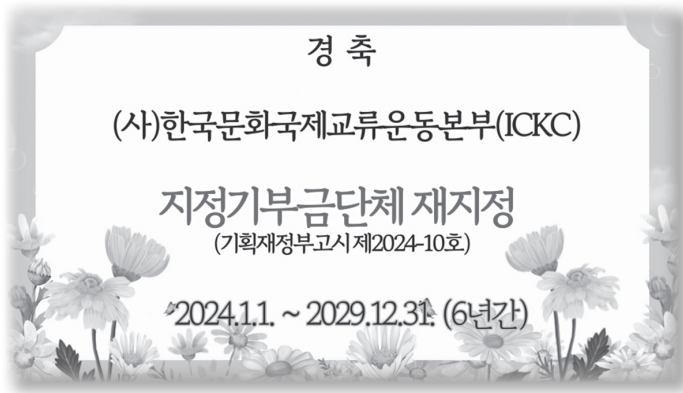
https://biz.chosun.com/sports/sports_general/2024/04/02



▲ 기자회견에서 대회 성공개최를 다짐하고 있는 조직위원회 관계자들

■ ICKC 공익단체(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지난 3월 29일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가 공익단체(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호). 2012년에 최초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래 2018년 그리고 이번 2024년에 재차 지정된 것으로, 명실 공히 ICKC의 여러 사업과 활동이 주무관청 및 정부로부터 그 의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께서 기부하신 후원금도 이번 재지정을 통해 이전과 동일하게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2024.01.01.~2029.12.31. 6년간입니다. 이번 재지정은 전적으로 몰심양면 후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 덕분이며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2024년 첫 문화탐방... 용산 한강대로 이야기길

지난 4월 18일(목), 2024년 첫 문화탐방으로 서울도보관광 신규 코스인 '용산 한강대로 이야기길' 코스를 탐방하였다. 조선의 수도인 한양과 전국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물자의 집결지였으며 전쟁 시엔 전략의 요충지인 용산의 골목길 구석구석을 걸어보며, 용산 곳곳에 남아있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옛 자취를 느껴 볼 수 있는 즐겁고 뜻 깊은 탐방이었다.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용산철도박물관, 백번 건널목, 미군 기지 등 용산의 주요 문화유산을 탐방했고, 삼각지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회원 간 친목을 다진 뒤 해산하였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5월 문화탐방, “북촌 한옥마을” 탐방

지난 5월 23일(목), 2024년 두 번째 문화탐방으로 북촌 한옥마을 일대를 탐방하였다. 서울도보관광 프로그램의 대표 코스 중 하나인 “북촌 한옥마을 탐방”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통한옥들이 모여 있는 북촌한옥마을의 골목길을 돌아보며 한국의 여러 문화유산과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이다. 이번 탐방에도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하여 운현궁, 북촌문화센터, 석정보름우물터, 정독도서관, 백인제 가옥 등을 돌아보며 문화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화창한 날씨에 산책을 겸한 탐방을 마치고 즐겁게 저녁식사 후 행사를 마쳤다.



2024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4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영실, 강재근, 고용규, 구병진, 김건길, 김성열, 김소진, 김승한, 김시범,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창옥, 김호일, 김홍석, 도재영, 박경명,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배대환, 심의표, 오일호, 유영찬, 유자호, 이명우, 이병욱, 이상철, 이서중, 이성호, 이인재, 이항구, 어헌목, 이효정, 이호진, 장정용, 전영섭, 정경수, 정상설, 정현관, 조남철, 조춘연, 추호석,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주)동우들, (주)루이제,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포스코DX, (주)P&H

가나다순, 2024년 1월 1일 ~ 2024년 6월 15일까지

총액 : 27,750,000원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24.03.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호)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박관용 前 국회의장 최불암 예술인	김용구 (주)신동 회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표재순 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 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운영위원	고용규 (주)동우들 대표이사 이효진 前주한호주대사관 호한재단 사무처장	심의표 前 KBS 부산총국장 정순영 前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주요 활동 내역

201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60주년 행사 연길 방문
2013년 서독 광부 파견 50주년 행사 개최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
2015년 파독(派獨) 광부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을 기리고 한·독 교류를 증진하고자 독일 뉘스라켄에서 한국음악회 공연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 태권도 명예 9단증 수여 · 타슈켄트 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약속
2018년 저개발 국가의 태권도 · 한국어 교육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업무협약 체결 및 캄보디아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타이페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참관
2019년 네팔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 참배
2020년 스리랑카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2021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태권도장 등록 원비 지원 사업
2022년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및 '동물사랑 · 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재능교육, 대한태권도협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국내 태권도장 수련생 대상 '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스리랑카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2023년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50주년 기념식 참석 및 폴란드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스리랑카 GCS 국제대회 및 GCS & THF Asia 태권도 대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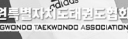
이외 재외동포유학생 장학금 수여,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분기별) 및 국내 · 외 문화탐방,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GANGWON CHUNCHEON 2024 WORLD TAEKWONDO CULTURAL FESTIVAL

강원·춘천 2024 세계태권도문화축제

7.1(월)~7.7(일)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

- 강원·춘천 2024 세계태권도시범경연&격파대회
- 강원·춘천 2024 세계장애인태권도오픈챌린지 G4
- 춘천 2024 월드컵팀챔피언십시리즈
- 2024 춘천 KTA 파워태권도
- 2024 춘천 KTA 다이내믹태권도
- 제8회 2024 KTA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태권도진흥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City of Chuncheon

강원도체육회

KSPF

Gangwon-Chuncheon 2024 World Taekwondo Cultural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